

학술 지식체계 분석을 통한 한국형 스포츠클럽 정착 방안 개발

진원재¹ · 정기홍²

¹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²강남대학교 교수

A Study on the Development regarding Facilitating Plan of the Korean-Styled Sports Club by Analyzing Academic Knowledge System

Jeon, Won-Jae¹ · Joung, Ki-hong²

¹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²Kangnam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omestic academic knowledge related to public sports clubs. In particular, it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type of perception of the Korean club system settlement plan for experts related to public sports club research, and further derive its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the Q methodology was adopted, and 25 Q samples were selected through the Q population. The P sample adopted 20 experts empathize with academic research related to public sports clubs and conducted Q classification. PQ method 2.35 was used for data analysis, the centroid method was applied for factor analysis, and the varimax method was applied for rot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a total of 4 types appeared,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all types was 58%. The first type was named as the pursuit of internalization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change, the second type was named as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governance with related institutions, the third type was named as the growth of public institutions for local sports welfare, and the fourth type was named as securing areas for activation of education. Through the above results, it was possible to understand the tasks that public sports clubs and related institutions should pursue in the near future to establish the Korean sports club system.

Key words : sports club, Korean-styled sports club, public sports club, Q methodology

주요어 : 스포츠클럽, 한국형 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 Q방법론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093625)

E-mail: King@kangnam.ac.kr

Received: April, 27, 2022 Revised: June, 08, 2022 Accepted: June, 22, 2022

I. 서론

대한민국은 스포츠강국일까? 스포츠선진국일까? 두 개념의 경계선에 대한 정책적, 학술적 논쟁이 있다. 국가 주도의 엘리트스포츠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원엘리트스포츠의 개혁, 통합체육회 출범,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스포츠클럽법 신설과 같은 법, 제도적 노력이 그 증거이다. 그 중에서도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논쟁은 스포츠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결정적 교두보 역할을 하고, 스포츠클럽 활성화의 중요한 밑알이다. 그 당위성을 세 가지 차원에서 논해보자. 첫째, 대한민국이 가까운 미래사회에 맞이하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문제이다. 지역 사회 중심의 스포츠클럽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대처할 수 있는 간접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 학원엘리트스포츠에 의존하는 선수육성 시스템의 개혁이다. 스포츠클럽 시스템의 정착은 출산을 저하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겪게 되는 선수 수급의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다. 셋째, 진정한 스포츠 복지국가 구현이다. 전 국민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우수한 강사가 지도하는 체육시설에서 스포츠를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지역 사회 커뮤니티의 활성화도 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요소를 가진다.

스포츠클럽에 대한 체육학계의 관심은 2000년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다양한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스포츠클럽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학술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2003년을 기점으로 스포츠클럽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이후부터는 폭발적으로 진척되었다(남상우, 2017). 이러한 연구 동향은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스포츠클럽 활성화 관련 내용이 국정 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2007년부터 시행된 학교스포츠클럽과 2013년

부터 시행된 종합형 스포츠클럽 사업(K스포츠클럽으로 변경된 바 있으며, 현재는 공공스포츠클럽으로 명칭 변경)은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분야에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성공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은 역대 정부에서 실시한 다양한 스포츠클럽 사업의 단점을 아우르는 선진국형 시스템의 핵심이기에(남상우, 2017; 전원재, 임수원, 2017), 이와 관련된 다각적 차원의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스포츠클럽 시스템 정착 방안 모색은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 사실인즉, 스포츠클럽 시스템 정착의 정당성을 정부 차원의 보고서(김양례, 2014; 남상우, 2017; 성문정, 2017), 학술 연구물(김성하, 2020; 김성하, 전원재, 2020; 남상우, 2019; 서원재, 박성희, 한승진, 2016; 이혁기, 신석민, 김인형, 전원재, 장승현, 2021; 전원재, 이혁기, 2021; 전원재, 임수원, 2017; 황수현, 김민, 서희진, 2015)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스포츠클럽 시스템 조직을 위한 국외 사례 바탕의 정책 보고서 및 연구(성문정, 2009; 주성택, 2011; 최철호, 2010)를 통해서도 학술적 논점을 살펴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몇몇 연구는 영국과 프랑스의 스포츠클럽 제도 실태도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분 독일과 일본을 선진국 사례로 들고 있고, 그 사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스포츠클럽 시스템의 당위성을 확보한 실정이다. 주지하다시피, 대부분의 북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등의 국가들도 상당히 발전되고 안정적인 스포츠클럽 시스템이 복지 차원에서 잘 갖추어져 있다. 결국, 스포츠선진국의 몇몇 사례를 바탕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미래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시스템 완성은 아직 부족함이 많을 것이다.

현재 스포츠클럽은 2013년 시행 이래, 208개소가 운영 중이며(2021년 11월 기준), 2021

년 하반기에 추가로 모집을 시행하고 있다 (kim, 2021, 11, 29). 대도시형(종합형), 중소도시형(종합형), 학교연계형(1개 종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총 29개소는 기금지원 종료 클럽(졸업클럽)이 되면서 자립형 클럽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시, 군, 구에 약 229개소 설립을 목표로 시작된 사업이다(대한체육회, 2019). 대한체육회(2019)는 기금종료 클럽(졸업클럽)의 운영이 지속해서 정상화될 수 있기 위해 신나는 주말학교 사업, 선수 저변 확대 사업, 학교체육시설개방 사업 등을 통해 스포츠클럽의 자립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부진클럽 선정으로 운영이 중단된 클럽이 다수 생겨났고, 기금지원 종료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이 나타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한 지속성을 강하게 비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학계 차원에서도 스포츠클럽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토대 연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와 학계 차원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다가올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다각적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가의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 부처의 역할과 학계의 연구들이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정철우, 김재준,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국내에서 스포츠클럽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10여 년간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학술논문 및 보고서를 토대로 도출된 학술 지식 체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스포츠클럽으로의 정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연구물 및 보고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스포츠클럽 정책에 대한 진단과 함께 미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도출해 내고자 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스포츠선진국의 경우에도 현재 국내 스포츠클럽 사업 진척과 관련된 난제를 경험해 왔기에 스포츠클럽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다각적인 학술적 논의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스포츠클럽 시스템 정착에 필요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 지원을 받는 클럽도 운영이 어려워 퇴출당할 위기에 놓인 곳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가 한국형 스포츠클럽 시스템의 충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학술적 논의에 대한 토대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한국형 스포츠클럽 정착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더 발전적인 스포츠클럽 정책 방향의 기초자료를 생성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스포츠클럽 관련 연구 및 정책 전문가가 진단하는 현재 스포츠클럽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한다. 둘째, 각 인식유형의 특성, 공통점, 그리고 시사점에 대해 알아본다.

II. 연구방법

이 연구는 전문가의 인식유형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의 방향성 도출을 위해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Q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을 연구하는 데에 적합한 방법으로써 연구대상이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 기호, 가치, 그리고 신념을 밝히기 위한 연구에 적합하다(Baker, 2006). 이 방법은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간호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기존의 R방법론과 달리 연구 대상자의 주어진 상황과 관련된 패턴을 추론하고, 내적인 인식과 사고 유형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다(Mckeown & Thomas,

1988; Watts & Stenner, 2012). Q방법론이 가설 검증의 의미보다는 가설 생성의 논리를 지니고 있고, 과학적 연구대상의 주관성을 포함시켜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가 아닌 연구대상이 공유하고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자결적 방법이기 때문이다(Watts, 2015). 이에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1. Q 모집단(Q-population) 구성 및 Q 표본(Q-Sample) 선정

Q모집단 구성을 위해 공공스포츠클럽과 관련된 학술 연구물 및 보고서 작성자, 정책 실행자를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법(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고,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Morgan, 1997). 이 절차를 통해 총 51개의 진술문이 생성되었다. 하지만 의미가

비슷하다고 판단되거나 중복되는 항목은 삭제하거나 재분류하였고 최종 25개의 Q표본을 도출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2. P 표본(P-Sample)

P표본 선정은 소표본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P표본의 수는 Q표본의 반 이상, 최대의 수를 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다(Watts & Stenner, 2012). P표본이 커지게 되면 오히려 한 요인에 다수의 응답자가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 각 요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이다(Kim, 2008), 이와 더불어 P표본 선정 시 연구주제에 관한 특별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선정해야 하기에(Stephenson, 1953),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공공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P표본

표 1. Q statements

NO	Q Statements
1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볼 때, 공공스포츠클럽의 양적 증가에만 초점이 있다.
2	공공체육 시설의 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3	대한체육회와 현장 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및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4	선수반-취미반 연계-선수자변 확대로 학원엘리트체육의 실질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
5	학교-클럽의 비대칭적 이해관계 속, 클럽이 적극적으로 사업 연계 실시 확대해야 한다.
6	비인기종목(지원이 열악한 종목) 동호회와 동호인의 환경 파악 후 유치에 힘써야 한다.
7	민간시설 활용에 있어 단순 시설 임대가 아닌 협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8	학교연계형 클럽은 해당 학교 이외의 학생,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9	모든 클럽은 자원봉사 단체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0	체육회와 클럽 조직의 업무 분담 및 행정적 예산 집행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11	시도 교육청은 관내 학교와 클럽의 MOU를 적극 권장할 수 있는 통로 마련해야 한다.
12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최적의 방역 시스템과 다양한 수업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13	스포츠클럽법 통과 이후 지자체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 신속 이행이 필요하다.
14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체육회, 클럽 간의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15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체육회, 클럽 간의 행정체계를 일원화 시켜야 한다.
16	지역 주민의 스포츠 복지 기관 역할을 해야 한다. (유아체육단, 스포츠 돌봄 교실 등)
17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클럽이 되어야 한다. (재능기부, 행사 개최 등)
18	지역 주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원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
19	시설확보가 어려운 종목이나 비인기 종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	자생 체육동호인 조직이 스포츠클럽을 조직할 수 있는 통로 개척 및 유인이 필요하다.
21	학교, 대학, 공기관, 일반기업 등 의 체육시설의 유인책을 위해 '법인화' 및 '시설사용시간(60% 이상)' 항목 개선이 필요하다.
22	지역 내 노인회, 보건소, 체육회와의 중복 사업 운영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3	세무서 기부단체 신청 확대 혹은 재원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
24	지자체와 체육회, 그리고 클럽 간의 협치를 위한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
25	공공클럽의 지역 간 시설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20명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P표본의 특성 및 인자가중치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3. Q분류(Q-Sorting) 및 자료처리

Q분류는 P표본으로 선정된 응답자에게 Q진술문을 분류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강제분류법으로 진행하였다(Brown, 1980). 작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면으로 Q분류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대면 실시간 방식(ZOOM)으로 하였다. 특히, 사전에 전화 통화를 통해 P표본 선정 및 Q분류 동의를 받았고, 분류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Q표본을 꼼꼼히 읽은 후, 긍정(+), 중립(0), 부정(-)의 3개 그룹별로 나누어 Q분류표에 배치하게 하였다. 이때 양 극단부터 중립 쪽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Q분류가 종료되고 난 후에는 양극단 진술문 배치 이유에 관해 면담을 진행하였고, 전사 작업 후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Q분류 틀은 <그림 1>과 같다.

수집된 자료는 PQ method 2.35 program을 이

용하여 처리하였다. 요인분석은 센트로이드 방법, 요인 회전은 배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방식을 적용하였다. 이상적인 요인 수를 추출하기 위해 Eigen 값이 1.0 이상인 요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수치를 7에서 2까지 입력하면서 최적의 요인 수를 결정하였다(Watts & Stenner,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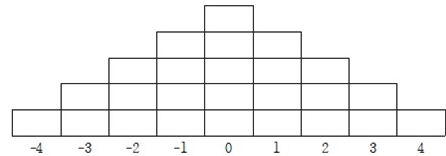


Figure 1. Q sorting table

III. 연구결과

1. 한국형 스포츠클럽 정착 방안 인식유형

공공스포츠클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한 주관성 조사 결과, 총 4개의 유형으로 결과

표 2. Summary of characteristics for the P-sample & Factor weights

Factor	P-sample	Gender	Age	Career(year)	Affiliation	Factor Weight
Type 1 (N=7)	2	Male	50	14	University, Pro.	0.59
	3	Female	38	11	Korea Sport & Olympic Committee	0.62
	9	Male	42	12	Public Sports Club	0.78
	12	Male	46	10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0.88
	15	Male	52	15	Korea Sport & Olympic Committee	0.81
	18	Female	51	14	Public Sports Club	0.77
	20	Male	40	9	University, PhD	0.79
Type 2 (N=5)	1	Male	38	9	Public Sports Club	0.59
	11	Male	39	10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0.65
	16	Male	42	8	Korea Sport & Olympic Committee	0.84
	17	Male	41	5	University, Pro.	0.88
Type 3 (N=5)	19	Female	39	5	University, PhD	0.69
	4	Male	51	6	Public Sports Club	0.59
	6	Female	42	7	University, PhD	0.62
	7	Male	45	9	Korea Sport & Olympic Committee	0.90
	10	Female	35	4	Public Sports Club	0.93
Type 4 (N=3)	13	Male	34	3	Public Sports Club	0.71
	5	Male	36	5	Public Sports Club	0.78
	8	Female	47	10	University, Pro.	0.65
	14	Female	41	10	University, PhD	0.81

가 나타났다. 각 유형별 아이젠 값(eigen value)은 각각 3.2451, 2.5412, 2.1241, 1.8945로 나타났다, 요인별 변량(variance)은 .2100, .1400, .1300, .1000, 그리고 총 변량(total variance)은 .5800이었다. 전체 유형의 설명력은 58%로 나타났다으며, 구체적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유형별 상관관계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적인 상관관계의 수치가 대부분 낮게 도출되면서 각 유형별의 설명력과 독립성이 확보되었으며, 제1유형과 제4유형의 상관관계가 가장 나타나면서 두 유형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Eigenvalues (EVs) and variance between types

	Type 1	Type 2	Type 3	Type 4
Eigenvalues (EVs)	3.2451	2.5412	2.3241	1.8945
% of explanatory variance	.2100	14.00	.1300	.1000
Total variance	.2100	.3500	.4800	.5800

표 4. Correlations between types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ype 1	1			
Type 2	0.11	1		
Type 3	0.23	0.30	1	
Type 4	0.09	0.18	0.10	1

1) 제1유형(N= 7): 법적·제도적 변화 모색을 통한 내실화 추구형

제 1유형에는 가장 많은 연구대상자가 분포하였다. 총 7명의 P표본이 포함되었다. P12(0.88)의 인가중치가 가장 높았으며, P15(0.81), P20(0.79), 그리고 P18(0.7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지난 10여 년간 공공스포츠클럽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좀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더욱 보완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다시 말해, 차체에 공공스포츠클럽과 관련된 문제

점을 법적, 제도적인 변화 모색을 피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응답자들은 스포츠클럽법 기반의 지자체 조례 제정 절차 이행, 시설에 관한 규정 변화, 동호회와의 통합적 방안, 클럽의 입지 격차 해소 방안, 클럽 운영의 선진화 등과 관련된 요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에 이 유형은 “법적·제도적 변화 모색을 통한 내실화 추구형”으로 명명되었다.

표준점수가 ±1.00인 총 7개의 Q진술문이 포함되었다.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동의를 보인 진술문을 살펴보면, Q13(Z-score=2.02), Q18(Z-score=1.87), Q20(Z-score=1.40), Q25(Z-score=1.14)순이었다. 가장 부정적인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Q8(Z-score=-1.95), 다음으로 Q4(Z-score=-1.64), Q16(Z-score=-1.30)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2) 제2유형(N= 5): 유관 기관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형

제2유형은 5명의 응답자가 분포하였다. 인가중치는 P17(0.88)이 가장 높았고, P16(0.84), P19(0.69), P11(0.65) 순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시군구체육회, 그리고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연결된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제가 절실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주요한 쟁점은 체육회와 공공스포츠클럽간의 갈등이었다. 또한 공공스포츠클럽과의 유관 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체육회)과의 유기적인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각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바탕으로 큰 시너지 효과를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근거로 이 유형은 “유관 기관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동의한 진술문은 Q10(Z-score=1.95)이었으며, Q14(Z-score=1.76), Q7(Z-score=1.2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정적인 동의를 나타낸 진술문은 Q9(Z-score=-2.00), Q2, 그리고 Q25 순으로 도출되었다. 표준점수의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Table 5. Statements with Z-scores of ±1.00 (or higher) from Type 1 to Type 4

		Q-Statement Number	Z-Score
Type 1 (N=7)	Positive	13	2.02
		18	1.87
		20	1.40
		25	1.14
	Negative	8	-1.95
		4	-1.64
		16	-1.30
Type 2 (N=5)	Positive	10	1.95
		14	1.76
		7	1.23
	Negative	9	-2.00
		2	-1.50
25	-1.11		
Type 3 (N=5)	Positive	12	1.90
		22	1.62
		17	1.31
	Negative	10	-2.00
		1	-1.54
7	-1.10		
Type 4 (N=3)	Positive	11	1.90
		5	1.52
		4	1.09
	Negative	13	-1.95
		20	-1.60

3) 제3유형(N= 5): 지역 스포츠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으로의 성장형

제3유형은 제2유형과 같은 5명의 전문가가 포함되었다. P10(0.93)의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응답자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그리고 P7(0.90)과 P13(0.71)순으로 높은 인자가중치를 보였다.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지역의 스포츠 복지를 실천하는 공공기관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공공클럽은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 주민과의 소통, 소외 계층의 스포츠 참여 지원 등을 실현하기 위해 자원봉

사 단체로의 인정 확대, 기부 단체로의 인정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 내 보건소, 노인회, 체육회 등에서 중복으로 사용되는 지역 주민의 스포츠 복지 예산을 통합할 수 있는 노력 의지도 피력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유형은 “지역 스포츠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으로의 성장형”으로 명명되었다.

이 유형에서는 Q12(Z-score=1.90)진술문에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었고, Q22(Z-score=1.62), Q17(Z-score=1.31)순이었고, Q10(Z-score=-2.00)에 가장 부정적인 동의를 보였다.

4) 제4유형(N= 3): 교육계 연계 활성화 영역 확보형

제4유형에는 가장 적은 3명의 응답자가 분류되었다. 3명의 인자가중치는 각각 P14(0.81) P5(0.78) P8(0.65)을 나타내었다.

이 유형은 교육계와 공공클럽 간의 연계 영역이 더 확고해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보였다. 응답자들은 학교 운동부 기반의 학원스포츠 시스템의 실질적인 대책 방안과 교육부와 교육청과의 질 높은 협력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계 연계 활성화 영역 확보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Q11(Z-score=1.90)에 가장 높은 동의를 보였고, Q5(Z-score=1.52), Q4(Z-score=1.09) 진술문에도 긍정적인 동의를 보이고 있었다. 가장 부정적인 동의를 나타낸 진술문은 Q13(Z-score=-1.95)이었다.

2. 유형별 공통점 분석 결과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동의한 진술문은 <표 6>과 같다. 모든 유형에서 부정적인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도출되지 않았으며, 긍정적으로 동의한 진술문은 Q3, Q1, 그리고 Q18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공스포츠클럽의 양적 성장에 치우친 정책 반대, 클럽의 내부 결속

및 질적 성장, 그리고 대한체육회와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6. Consensus statements

Q-Statement Number	Z-Score
3	0.82
1	0.75
18	0.64

IV. 논의

상기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한민국의 스포츠클럽 시스템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학술적 관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디딤돌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포츠의 각 분야가 선진화된 구조로 진일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자세한 발전방안을 타진해보자.

첫째, 제1유형의 응답자들은 공공스포츠클럽을 둘러싼 객관적인 환경의 변화를 토대로 내실화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음은 제1유형의 응답자가 양극단 진술문 배치 이유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타난 이 사업의 특성은 양적 증가에 초점이 맞춰 있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질적인 측면도 고려해야죠. 비인기 종목의 진입, 지역 간 시설 접근성 격차 등을 고려해야 함(P18).

법적으로 지자체 조례 제정을 속히 마무리하고, 시설 확보가 어려운 종목과 비인기 종목으로 공공클럽으로 들어오기 힘든 구조와 대학, 기업 등의 시설은 법인화와 시설사용시간 조항으로 인해 신청하기 힘든 제도적 변화도 피할 필요가 있음(P12).

위 진술문을 보면, 제1유형은 공공스포츠클럽과 관련된 내·외적인 제도 변화에 쟁점이 있다. 202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하는 스포츠클럽법의 제정으로 인해 공공스포츠클럽의 법적인 지위 확보와 지원체계가 마련이 되었기에(이창하, 2021), 지자체의 조례 제정 및 지원 근거에 대한 학술적 난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남상우, 2019; 송명근, 2021).

현재 공공스포츠클럽은 종목시설을 중심으로 선정된 결과로 시설 확보가 어려운 종목 혹은 비인기 종목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다. 또한 대학, 공공기관, 일반 기업 체육시설을 기초로 하는 클럽은 법인화와 시설사용시간(60%) 조항으로 인해 더 확대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한다(김성하, 2020). 따라서 공공체육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도 공모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고려가 필요하다.

클럽 설립이 전국에 균등하게 분포하도록 설계한 기존의 방침과는 달리, 지난 3년간 양적 증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지역 간 시설 접근성 격차 문제가 발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도 수많이 산재하고 있는 동호회와의 통합에도 어려움이 많다(김성하, 전원재, 2020). 이에 대해 기존의 생활체육 동호회가 단일 종목의 정체성에서 탈피해서 다종목, 다계층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공공클럽으로 흡수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제2유형에서는 한국형 스포츠클럽으로 정착하기 위해 공공스포츠클럽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사업 주체의 업무 성격이 비슷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었다.

거버넌스 도입 목적은 실질적인 협력관계, 파트너십, 그리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 수행에 있으며, 공공스포츠클럽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김선희, 전형상, 2014). 따라서 거시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미시적으로는 시

군구 체육회와 지자체는 의사소통의 채널 구축에 힘쓰고, 업무 조정의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Goldsmith & Eggers, 2004). 무엇보다도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는 거버넌스 구축의 난제는 기관과의 갈등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시군구 체육회의 업무가 공공스포츠클럽과 중복되는 측면이 존재하며, 관리 체계의 모호성으로 인해 경쟁 구도가 되기도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송명근, 2021).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무 관청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김성하, 2020). 지자체, 대한체육회 등의 지원과 관리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 기관들이 상급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체육회와 클럽 두 단체 모두 지역단위 실행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주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클럽의 수가 늘어날수록 갈등의 유발 가능성도 지속해서 높아질 수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듯 대한체육회, 지역체육회, 그리고 공공스포츠클럽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신속히 고려해야 한다. 첫째, 유관기관과의 업무 체계 선진화 및 사업 확대이다.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과 관련된 사업은 공공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문체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협력 의지가 필요하며, 전자문서 체계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신재진, 2011. 11. 25). 둘째, 지역체육회와 공공스포츠클럽의 업무의 분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클럽은 지역 체육 업무의 실행주체로, 체육회는 관리 및 행정의 주체로 그 성격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가 요구된다(이동원, 2021. 11. 25).

셋째, 제3유형은 진정한 스포츠 선진국의 공공기관으로 발전하는 방안에 초점이 있다. 지역 주민에게 최고의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는 매개체가 공공클럽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소외계층의 스포츠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방안은 지난 몇 년 동안 지속해서 논의되어 온 기부단체 지정, 자원봉사 단체 인정 확대가 될 수 있다(전원재, 임수원, 2017; 전원재, 임수원, 2018). 또한 지역 내 공공기관(노인회, 보건소, 체육회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클럽과 중복되는 부분들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의 부처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전 세계를 마비시킨 COVID-19는 공공스포츠클럽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시련을 안긴 바 있다(김성하, 2021). 가까운 미래에 그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는 확률은 높지 않지만, 클럽들은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방역과 안전한 시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회원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 관련 기관과의 의사소통 채널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전원재, 정기홍, 2021).

넷째, 제4유형은 교육부와와의 연계에 초점이 있는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최근 3년간 공공클럽 사업이 학교 연계형 클럽 모집만을 진행하면서 양적 증가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학교 운동부와 관련된 학술적 관점이 중요한 쟁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학교 연계형 클럽이 “기존 학교 운동부 중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의 구제 측면인가?”, 아니면 “비인기 종목 중심의 운동부 활성화와 엘리트 체육 저변 확대의 목적인가?” 하는 이데올로기가 생성되고 있다. 공공클럽이 학원엘리트스포츠의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클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도자의 안정적 고용, 연령 별 팀 구성을 통해서 지속성의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미 공공클럽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측면의 장점인 비강압적 훈련, 학생선수의 인권 보장, 사회성 함양 등의 가치체계가 증명되었기 때문이다(이혁기, 신석민, 김인형, 전원재, 장승현, 2021). 다음은 응답자와의 면담 내용 중 일부이다.

급격하게 늘어난 학교 연계형 클럽이 기존 학교 운동부의 해체를 유도하는 간접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P14).

기존 클럽이 아닌 학교 연계형 클럽의 경우에는 단순히 학교 운동부를 지원하거나 해체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넘어 진정한 공공클럽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인다. 클럽 회원이 해당 학교와 다른 학교 학생의 참여로 이어지는 저변 확대까지 연결되어야만 진정한 공공클럽으로써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시설을 관리하고, 그들을 클럽 안으로 모셔올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해야만 진정한 공공클럽의 정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클럽 처지에서는 학교랑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교와 클럽이 공식적인 계약이 가능하도록 교육청이랑 교육부에서도 협력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P5).

위 진술문에서 알 수 있듯이, 클럽 차원에서도 인근 학교와의 연계를 위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공공스포츠클럽 조직 리더가 발휘하는 리더십이 서비스품질, 직무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이 증명되었다(신상현, 2021). 사실인즉, 학교와 클럽 간의 비대칭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공공클럽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방과 후 수업 혹은 신나는 주말체육교실 등의 사업을 학교에서 시행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일선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과의 연계에 안주하면 안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학교스포츠클럽 혹은 학교 운동부 등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합리적 연계 방안 도출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사업의 확대를 위해 클럽 차원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로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된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공공스포츠클럽의 학술 지식 체계 분석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형 스포츠클럽 정착 방안에 대한 인식유형을 알아보고, 그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Q방법론을 차용하였고, Q모집단을 통해 총 25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P표본은 공공스포츠클럽과 관련된 학술연구와 관련된 20명의 전문가를 채택하였고, Q분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자료분석은 PQ method 2.35를 사용하였고, 요인분석은 센트로이드 방식, 회전방식은 배리맥스 방법을 적용하였다.

총 4개의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전체 유형의 설명력은 58%로 나타났다. 제1유형은 법적·제도적 변화 모색을 통한 내실화 추구형, 제2유형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형, 제3유형은 지역 스포츠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으로의 성장형, 그리고 제4유형은 교육계 연계 활성화 영역 확보형으로 명명되었다. 한국형 스포츠클럽 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공공스포츠클럽 및 유관기관들이 향후 지향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은 국가적 차원과 법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매우 크다.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정 과제(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중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시설 지원 확대와 전국 모든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클럽을 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둘째, 법적 차원에서는 2022년 6월 시행된 스포츠클럽법 제2조에서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법안 마련이 명시되었다. 대한민국의 스포츠클럽 시스템 조직 완성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도 드러났듯이, 향후 공공스포츠클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과제는 단순히 하나의 기관에만 책임소재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공공스포츠클럽 자체의 내실화를 추

구하고, 대한체육회, 체육회,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되면서 더욱 법적인 근거가 생겨났기 때문에 상기 과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까지 이어지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모든 클럽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연구를 토대로 클럽들이 겪었던 사례를 경험적 연구로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스포츠클럽이 가지는 다양한 경제적 가치가 생산될 필요성이 있다. 보다 객관적인 연구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건부가치평가법(VMS)을 적용하여 경제성을 타진해보는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선희, 전형상(2014). 공공스포츠클럽 사례를 통해 본 협력적 거버넌스 가능성과 한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3(4), 81-98.
- 김성하(2020).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8(3), 161-177.
- 김성하(2020). COVID-19로 인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애로사항 및 극복 노력 사례 연구.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9(4), 111-130.
- 김성하, 전원재(2020).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한 전문선수 육성의 장애요소와 개선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55, 207-224.
- 김양례(2014). *종합형 스포츠클럽 사업 육성방안 연구*. 한국스포츠개발원.
- 남상우(2017). *성공적인 스포츠클럽 운영모델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스포츠개발원.
- 남상우(2019). 조직역량 관점에서 분석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의 난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8, 323-335.
- 대한체육회(2019). *2019년 스포츠클럽 사업지침*. 대한체육회.
- 서원재, 박성희, 한승진(2016). 스포츠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종합형 스포츠클럽 발전 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39, 217-232.
- 성문정(2009). *유럽국가의 학교·생활·엘리트 체육간 연계운영 실태분석-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원.
- 성문정(2017).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한국스포츠개발원.
- 송명근(2021). 대한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정책 사업의 성과 분석. *한국체육정책학회지*, 59(0), 33-48.
- 신상현(2021). 공공스포츠클럽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이 서비스품질 및 조직몰입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86, 83-91.
- 신재진(2021. 11. 25). *공공스포츠클럽의 성공사례 발표. 공공스포츠클럽 발전방안 토론회 자료집*. 경향신문사.
- 이동원(2021. 11. 25). *공공스포츠클럽의 성공사례. 공공스포츠클럽 발전방안 토론회 자료집*. 경향신문사.
- 이창하(2021). 공공스포츠클럽으로 국민의 여가와 건강을 동시에!. *SPORT SCIENCE*, 15(70), 58-68.
- 이혁기, 신석민, 김인형, 전원재, 장승현(2021).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의 정립을 위한 공공스포츠클럽의 가치체계분석: 수단-목적 사슬이론 관점에서. *한국체육학회지*, 60(3), 341-352.
- 전원재, 이혁기(2021). 공공스포츠클럽 사업 실효성 재고찰: Q 방법론을 통한 인식분석과 시사점. *한국체육정책학회지*, 57, 87-103.
- 전원재, 임수원(2017). 한국 스포츠시스템의 선진화를 로컬 거버넌스 구축 방안.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0(1), 149-173.
- 전원재, 임수원(2018).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의 정

- 책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운영시스템과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4, 291-308.
- 전원재, 정기홍(2021). “위드 코로나 (With COVID-19)” 시대, 어린이전용수영장 운영 실효성 재고찰.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5(3), 153-167.
- 정철우, 김재준(2012).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건설분야 트렌드 분석.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논문집*, 12(2), 53-60.
- 주성택(2011). 일본의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 시책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0(3), 235-246.
- 최철호(2010). 일본 스포츠정책에 관한 고찰.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3(1), 251-274.
- 황수현, 김민, 서희진(2015). 종합형스포츠클럽의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한국웰니스학회지*, 10(4), 73-82.
- Baker, R. M. (2006). Economic rationality and health and lifestyle choices for people with diabetes. *Social Science & Medicine*, 63(9), 2341-2353.
- Goldsmith, S., & Eggers, W. D. (2004). *Governing by Network: The New Shape of the Public Sector*.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Kim, H. K. (2008). *Q Methodology: Philosophy, theories, analysis, and application*. Seoul: Communication books.
- Kim, S. H. (2021, 11, 29). "It's hard to stand alone because of limited facilities and finances...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in dire need of continuous support.". *The Kyunghyang Shinmun*. <https://m.khan.co.kr/sports/sports-general/article/202111292134025#c2b>
- Mckeown, R. & Thomas, D. (1988). *Q methodology*. Newbury Park (CA): SAGE.
- Stephenson, W. (1953). *The study of behavior: Q-technique and its methodology*.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05-122.
- Watts, S. (2015). Develop a Q methodological study. *Education for Primary Care*, 26(6), 435-437.
- Watts, S., & Stenner, P. (2012). *Doing Q methodological research: Theory, method and interpretation*. Los Angeles: SAGE.